

결혼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및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모형*

최 승 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스마트폰 중독, 외도 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외도 태도를 부부관계 및 개인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인터넷 외도가 갖는 매체 특수성을 고려해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추가하였다. 연구 모형으로 각 변인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만족도가 외도태도를 매개하여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매개된 조절 모형을 상정하였다. 기혼의 성인 531명(남=264명, 여=26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외도, 스마트폰 중독, 결혼만족도, 외도태도에 관한 자료 수집 후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외도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는 적합도를 보였으며, 결혼만족도는 외도태도의 완전 매개를 거쳐 인터넷 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스마트폰 중독 역시 인터넷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도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제안하였으며, 뒤이어 본 연구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 외도, 스마트폰 중독, 결혼만족도, 외도태도, 매개된 중재 모형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B00970).

† 교신저자 : 최승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139-701
Tel : 02-940-8654, E-mail : kucc1905@kw.ac.kr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섰으며(서영준, 2015) 손 안의 인터넷 세상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80%를 넘어섰다(김효정, 2014).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기존 PC 기반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이동성의 제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건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졌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음악을 들으며, SNS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머리맡의 스마트폰을 찾고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바, 가히 현대인의 하루가 인터넷으로 시작해 인터넷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인터넷이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하는 행동 문제 중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가 본고에서 논하는 인터넷 외도(Internet infidelity)이다. 인터넷 외도는 광의적으로 웹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배우자 이외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인터넷 외도 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Hertlein & Piercy, 2006). 예를 들어, Young(1998)은 온라인상의 성적 콘텐츠 및 성 관련 채팅에 대한 과도한 충동과 욕구 조절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해 개인과 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온라인 외도(Online infidelity)로 정의하며 개념적 정의에 있어 성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Nelson, Piercy와 Sprenkle(2005)도 인터넷 채팅방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성 과 접촉하여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 성적, 육체적 관계로 나아가는 행위를 인터넷 외도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Underwood와 Findly(2004)는 인터넷 외도가 강한 정서적 친밀감에 기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행위자의 성적 각성 및 성 관련 자극에 대한 추구, 온/오프라인 상의 성적 접촉 여부가 인터넷 외도 정의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련의 연구자들(Whitty, 2003; Hertlein & Piercy, 2006; Wilson, Mattingly, Clark, & Bequette, 2011; Docan-Morgan & Docan, 2007; Henline, & Lamke 2003)은 성적 단서나 접촉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SNS, 채팅, 이메일 교류 등이 인터넷 외도 행동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교류를 통해 배우자 이외 이성과 친밀감을 나누며 정서적 위안을 얻는 행위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인터넷 외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12년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배우자/연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Choi, 2012)를 실시한 결과, 성적 교류 외에도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하는 배우자/연인 이외 이성과의 만남 혹은 정서적 교류 행동들이 인터넷 외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터넷 외도 행동 목록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목록을 보면, 음란물과 같은 성적 콘텐츠를 은밀하게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배우자 이외 이성과 자주 나누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행동들이 인터넷 외도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외도 행동의

표 1. 면접 및 설문문을 통해 얻어진 인터넷 외도 행동 목록

-
-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성을 성적인 의도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우
 - 온라인상에서 이성과 사진을 주고받거나 웹캠을 이용해 자기를 노출하는 경우(누드사진이나 성적인 자세를 취한 사진 등)
 - 온라인상에서 자주 이성과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 유혹 등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경우
 -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성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려고 하거나 만난 경우, 이때 성적인 의도 혹은 접촉은 없다
 - 온라인상에서 이성과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 유혹 등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 이메일이나 메신저(네이트온 등)를 통해 개인의 일과를 자주 주고받는 이성이 있는 경우
 - 이메일이나 메신저(네이트온 등)를 통해 고민이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이성이 있는 경우
 - 모르는 이성과 일상적인 대화, 신변잡기를 나누기 위해 자주 온라인 채팅을 하는 경우
 - 한 번이라도 채팅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는 경우
 - 고민이나 속 깊은 얘기를 온라인 채팅으로 자주 나누는 이성이 있는 경우
 - 온라인상에서 종종 자신의 신분이나 나이를 숨기는 경우
 - 온라인상에서 종종 결혼여부(혹은 연애여부)를 숨기는 경우
 - 배우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에 자주 접속해 확인하고 답을 하느라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 종종 온라인상에서 하는 일들을 배우자(혹은 애인)에게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자주 찾아보거나 내려 받기로 자료를 모으는 경우
-

Choi.(2012). A New Crisis of Marriage - Koreans' Awareness and Attitude to the Internet Infidelity.

정의가 행위자의 행동 특성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상대 배우자의 인식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동일 혹은 유사한 행동이라도 이를 바라보는 배우자의 시선이나 인식에 따라 그것이 외도행동으로 정의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tabb와 Cox, Harber(1997)는 인터넷 외도에 대한 세부적 정의보다는 인터넷을 매개로 이성을 만나는 행위라는 광의적인 정의 하에,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주목하고, 치료적 개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외도는 가장 뚜렷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상대 배우자에게 심적 고통과 분노, 모멸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서적 교감이 포함된 배우자의 외도에 더욱 심한 배신감과 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인터넷 외도 역시 오프라인 외도 못지 않게 상대 배우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는데,

Schneider(2000)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이버 섹스를 알게 된 상대 배우자는 배신감과 모멸감, 수치심, 질투,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성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성 과 성적 의도가 배제된 채 정서적 교류만을 나누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는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rtlein & Piercy, 2006). 국내 부부 대상의 치료 사례 연구(최승미, 미발표)에서도 성적 접촉 없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성과 반복적인 채팅을 나누는 사실을 상대 배우자가 알게 된 후 심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외도는, 오프라인 상의 외도 못지않게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도만큼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Young, Cooper, Griffin-Shelley, Buchanan, & O'Mara, 2000).

한편,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스마트폰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넘어섰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세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중 81.7%는 뚜렷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심지어 우리나라 직장인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군에 해당되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장애, 낮은 업무 수행, 내성 및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이호준, 2014).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 PC 기반

의 인터넷이 현재의 스마트폰 기반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모바일 콘텐츠의 주 수요층과 사용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즉, 고가의 제품 사양 및 통신비를 전제로 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지불능력을 갖춘 성인, 특히 3-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새로운 소비군으로 빠르게 유입시켰고(백인성, 2011), 이에 따라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모바일 콘텐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1-20대와는 달리, 중장년층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빠른 수요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초희, 2014).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SNS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프로필 기반 관계 지향 서비스가 단연 앞서고 있으며, 카페, 클럽 등의 커뮤니티, 트위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SNS를 통한 대인관계 경험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중장년층의 새로운 소통 문화로, 이러한 SNS 선호가 일부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배우자 이외 이성을 만나는 현상이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혹은 중독적 성향이 이러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홍재원, 2014),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는 과도한 SNS 사용이 불륜과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layton, Nagurney, & Smith, 2013; Clayton, 2014). 따라서,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인의 SNS 중독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 중독을 주요한 개인 변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및 성인의 SNS 중독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초기 수준으로 관련 연구들이 제한적이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 SNS가 왜 중장년층에게 선호되며, 어떠한 기제로 외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인터넷이 갖는 고유 특성 및 그에 기반한 관계 경험이 외도 행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들 중 일부는 때로 현실적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으며, 가상의 공간에서 성적 접촉을 비롯한 다양한 친밀한 관계 경험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동시에 로그아웃이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관계자체가 소멸해 버리기도 해, 외도 상대자에 대한 몰입 정도나 심적 부담,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등 감정적 소요가 현실의 외도에 비해 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외도 행위자로 하여금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성과의 만남에 보다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낳게 할 수도 있다(Orr, 2004). 만일 외도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결혼만족도는 외도와 관련지어 자주 논의되었던 변인 중 하나로 Glass와 Wright(1977)는 고통 받는 부부에게서 외도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Treas와 Giesen(2000) 역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낮은 결혼만족도와 외도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인데 그러나 또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와 달리 결혼만족도와 외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성이 없음이 보고되기도 한다(Nair, 2009;

Blustein & Schwartz, 1983).

결혼 만족도가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남녀 성차가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외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1983; John, 2006). 성차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가 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Liu, 2000).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성적 불만이 낮은 결혼만족도의 주된 요인일 경우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불만이 낮은 결혼만족도의 주된 요인일 때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외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또 다른 논의 중 하나는 낮은 결혼 만족도가 외도의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Previti & Amato, 2004). 즉 그간의 연구들은 횡단적 연구를 바탕으로 외도를 경험한 부부들의 회상적 보고에 기반하여 결혼만족도와 외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어, 실제 낮은 결혼만족도가 외도를 발생시킨 원인인지 혹은 외도의 결과물인지를 변별하기 어렵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만족도와 외도와의 관련성에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외도에 대한 허용적, 개방적 태도는 일관되게 외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는데, 남녀 모두 외도에 대해 허용적 태도와 과거 이성 관계 경험이 많을수록 외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Cauffman, 1999; Blow & Hartnett, 2005). 외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Weis와

Jurich(1985)는 높은 교육 수준 및 대도시 거주자, 결혼 전 이성 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 독신 요인을 꼽고 있는데 특히 기혼자의 경우 낮은 결혼만족도가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관계 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가 배우자 외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허용적 태도, 즉 외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Schafer(2011)는 부정적 부부 관계 경험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배우자 이외 이성에 대한 성적, 정서적 외도 행동에 보다 허용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관계 변인인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성격 변인인 외도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결혼만족도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만족도는 외도 태도를 매개로 외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인터넷 외도에 적용, 결혼만족도가 외도 태도를 매개로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외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도에 대한 허용적, 수용적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두 변인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구현한 모델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데, 결혼만족도가 외도 태도를 매개하여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외도에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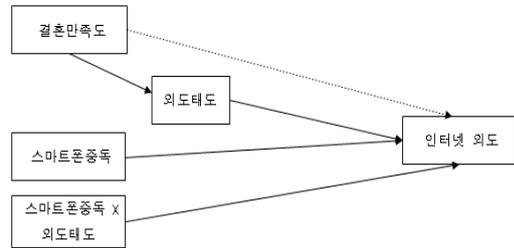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점선은 수정 모형에서 가정한 경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외도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외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매개된 조절 모형 (mediated-moderation model; Preacher, Rucker & Hayes, 2007)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간접 영향만을 상정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직접 영향을 포함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온라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온라인 리서치 기관에 기관 회원으로 등록된 인터넷 사용자 531명(남=264명, 여=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상을 기혼자로 제한하였으며, 연령 및 성비 등에서 고르게 피험자군이 모집될 수 있도록 사전 표집 조건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기관에 등록된 패널 회원들이무작위로 선출, 설문 조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설문은 이메일에 링크된 웹 페이지를 방문, 절차에

맞춰 응답하도록 안내되었으며,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페이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무응답 자료는 전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 인적 사항 및 설문 문항에 답을 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웹머니가 지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리서치 기관을 통해 데이터 파일로 변환되어 연구자에게 송부, 이를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남녀 각각 10.54(9.64)년, 여성은 11.47(9.95)년이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에 대

한 질문에 남녀 각각 41%, 34%가 그런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2-30대가 4-50대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진흥원(2012)에서 제안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 기준에 따라 중독 수준을 분류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참가자의 88%, 여성의 경우 82%가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는 남녀 각각 8%, 9%이며 고위험군은 4%, 8%를 보였다.

측정 도구

인터넷 외도 행동 평가

인터넷 외도 행동을 평가를 위해, 선행 연구들(Whitty, 2003; Wilson, Mattingly, Clark, & Bequette, 2011; Docan-Morgan & Docan, 2007; Henline & Lamke, 2003)에서 사용된 인터넷 외도 행동에 대한 문항들과 우리나라 대학생 및 일반 성인 38인과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관련 행동들을 추가하였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행동들 중 배우자/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외도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행동들을 정의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수집된 행동들에 대해 심리학 박사 2명과 석사 2명이 평가와 토론을 통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한 행동들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예비 문항에 선별적으로 포함 시켰다. 문헌 연구 및 면담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저자가 1차 예비문항 22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부부상담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3인에게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

표 2. 인구학적 특성

		남(n=264)	여(n=267)
	M(SD)	40.06(10.09)	39.37(10.08)
연령	20~29세	64	66
	30~39세	66	71
	40~49세	66	64
	50~59세	68	66
결혼기간	M(SD)	10.54(9.64)	11.47(9.95)
	전체	109(41%)	91(34%)
인터넷 외도경험 (있음)	20대	35	32
	30대	41	31
	40대	18	12
	50대	15	16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12(5%)	26(10%)
	1시간 ~ 3시간	132(50%)	127(48%)
	3시간 ~ 6시간	88(33%)	71(27%)
	6시간 이상	32(12%)	43(16%)
스마트폰 중독	일반사용자군	233(88%)	218(82%)
	잠재적 위험군	22(8%)	26(9%)
	고위험군	9(4%)	23(8%)

** p<.01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거쳐 부적절한 문항 및 의미가 모호한 문항들을 제거/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의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앞서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 있는가’로 질문되며, ‘전혀 하지 않았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5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1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성적 접촉/직접적 만남’, ‘온라인에서의 정서적 대화’, ‘거짓말 및 인터넷사용패턴’이었으며 각각의 내적 합치도는 .89, .85, .87이었다. 탐색적으로 확인된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세 가지 요인을 상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TLI = .901, CFI = .92, RMSEA = .09로 양호하였다(Choi,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2012)이 개발한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42점 이상일 경우(혹은 일상생활 장애 14점,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을 충족할 때)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은 총점 39점~41점 이하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외도태도척도(Attitudes toward Infidelity Scale)

외도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정도를 평정하는 척도로 Whatley(2006)가 개발한 ‘Attitudes toward Infidelity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1차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번역자에게 번역을 의뢰하였으며, 본 연구자 및 임상심리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번역자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여, 초기 문항과의 비교,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외도태도 척도는 외도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 12개의 문항(‘혼인관계에서 외도란 이혼의 원인이 된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양감음으로 외도를 용인할 수 있다’, ‘외도는 인간에게 자연스런 일이다’, ‘채팅방에서의 성적 대화, 음란물을 보는 것 등은 외도 행동이다’, ‘내 배우자(연인)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외도를 할 것이다’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하다(7점)’의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12개의 문항을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나 사고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하위 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간략형을 사용하였다. 간략형 척도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원문항 22문항 중 부부의 결혼 만족도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문항 10개를 추출, 해당 문항의 합산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여주는데, 5개의 부정적 문항(우리 결혼 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등), 5개의 긍정문항(내 배우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 준다)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문항 5개에 대한 역채점 점수를 긍정문항 5개의 점수와 합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는 .84였다.

분석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및 AMOS 20.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주요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난 경험 여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들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외도에 대한 결혼만족도, 외도태도, 스마트폰 중독의 모형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만족도가 외도 태도를 매개하여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 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된 조절 모형을 상징, 각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 태도의 상호작용 항을 잠재변수로 모형에 투입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평균중심화 값을 구하여, 각각의 값을 곱한 후 상호작용 항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Ping, 1996). 더불어, 외도관련 선행 연구에서 차이 변인으로 지적

되었던 성과 결혼기간 등 인구학적 변인과 기존의 외도 행동 여부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 변인을 통제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지수인 카이자승 검증 및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의 경우 .95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있다(Hu & Bentler, 1999).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3).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내외 연구

표 3. 남녀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비교

	M(SD)		t
	남	여	
결혼만족도	5.98 (2.84)	5.46 (3.15)	2.00
스마트폰중독	31.66 (6.55)	33.37 (7.34)	-2.83***
외도태도	34.16 (11.25)	29.52 (10.13)	5.00***
인터넷외도행동	28.31 (8.99)	25.42 (9.43)	3.61***

p < .01, *p < .001

결과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전호선, 2013; Jenaro, Flores). 반면,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인터넷 외도 행동은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이성과의 만남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온라인상에서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주요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외도태도, 인터넷 외도 행동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4). 즉, 온라인 상에서 배우자 이외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스마트폰 중독 점수를 보였으며($t = 3.66, p < .001$), 외도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t = 1.96, p < .05$), 인터넷 외도 행동 목록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t = 7.28, p < .001$). 반면, 결혼만족도에

표 4. 온라인 상에서 이성을 만난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비교

	M(SD)		t
	있음	없음	
결혼만족도	5.55 (2.89)	5.82 (3.08)	-1.02
스마트폰중독	33.93 (7.89)	31.66 (6.28)	3.66***
외도태도	33.02 (11.35)	30.11 (10.63)	1.96*
인터넷외도행동	30.47 (10.36)	24.67 (7.87)	7.28***

* $p < .05$, ** $p < .01$, *** $p < .001$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차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으로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 각각의 변인들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고위험군은 일반군이나 잠재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허용적인 외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F = 1.42, p < .05$), 인터넷 외도행동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많은 인터넷 외도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외도 변인의 경우 외도 태도 및 스마트폰 중독 변인과는

표 5.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차이 비교

	M(SD)			F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결혼 만족도	5.84 (3.06)	5.29 (2.65)	5.02 (2.77)	2.25
외도 태도	31.60 (10.80)	31.21 (11.95)	34.21 (11.17)	1.42* a, b < c
인터넷 외도 행동	25.46 (7.99)	30.64 (10.29)	35.36 (12.84)	34.27*** a<b<c ¹⁾

* $p < .05$, *** $p < .001$ a1)

1) Scheffe 사후 검증결과

a=일반군, b. 잠재위험군, c= 고위험군

표 6.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1	2	3	4
1. 인터넷외도	1			
2. 결혼만족도	-.13**	1		
3. 외도태도	.42**	-.23**	1	
4. 스마트폰중독	.38**	-.13**	.06	1

** $p < .01$.

유의하게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 만족도 변인과는 유의하긴 하나 다소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만족도 변인은 인터넷 외도 뿐 아니라 외도 태도, 스마트폰 중독 변인들과 유의하게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외도 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변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인터넷 외도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외도에 대한 매개된 중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표 7). 이때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결혼기간, 온라인으로 이성을 만난 경험 여부 등이 주요 변인들간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을 통제 후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가 외도태도를 매개하여 인터넷 외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의 경우, 주요 적합도 지수 모두에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chi^2 = 10.212$, $df = 3$, $TLI = .897$, $CFI = .982$, $RMSEA = .067$).

한편, 결혼만족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수정모형의 경우, 연구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다소 뒤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chi^2 = 10.196$, $df = 2$, $TLI = .711$, $CFI = .979$, $RMSEA = .088$).

두 모형의 적합도를 직접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Delta\chi^2(1, 531) = .006$, ns), 모형간의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다 간명한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이 수정모형에 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결혼만족도가 외도태도에 미치는 경로($\beta = -.22$, $p < .001$)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경로($\beta = .35$, $p < .001$)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표 7. 인터넷 외도에 대한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0.212	3	.897	.982	.067
수정모형	10.196	2	.711	.979	.088

표 8. 경로계수 및 표준화 계수

		B	β	S.E	t	
결혼만족도	→	외도태도	-.22	-.22	.04	-5.22***
외도태도	→	인터넷 외도	3.22	.35	.33	10.11***
스마트폰 중독	→	인터넷외도	3.15	.35	.33	9.88***
스마트폰 중독 x 외도태도	→	인터넷외도	1.56	.18	.33	5.00***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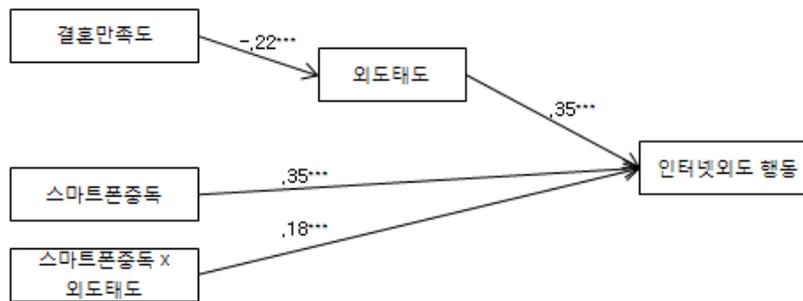


그림 2. 결혼만족도, 외도태도 및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외도 관계에 대한 매개된 중재모형과 표준화 계수 (성별, 결혼기간, 인터넷을 통해 이성을 만난 경험 통제)

타났으며($\beta = .35, p < .001$),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태도의 상호 작용항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8, p < .001$).

한편, 연구모형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가 외도 태도를 매개로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eta = -.09$ (신

뢰구간: $-.012 \sim -.057$)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만족도의 경우 외도태도를 매개하여 인터넷 외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및 외도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상호작용항 각각은 모두 인터넷 외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외도태도의 매개 효과 검증

	Bootstrap estimat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결혼만족도 → 외도태도 → 인터넷외도	-.09	-.012	-.057

인터넷 외도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논 의

인터넷 외도에 대해 외도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의 평균치 ±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고수준, 저수준을 설정, 각각을 회귀식에 투입해 보았다.

분석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도 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경우 외도 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인터넷이 소개된 초창기부터 서구권에서 중요한 대인관계문제로 주목받았던 인터넷 외도의 현상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개인의 성격변인으로서 외도에 대한 태도를 독립 변인으로 상정하였으며, 더불어 인터넷 외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 기반 특성을 갖는 현상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지난 수년 사이에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가진 플랫폼적 기능(무선 인터넷 접속의 편이성; 최원석, 2010)에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엮여진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노미정, 김진화, 이재범, 2010)적 기능이 합쳐지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그림 2를
그림 3으로
고쳤습니다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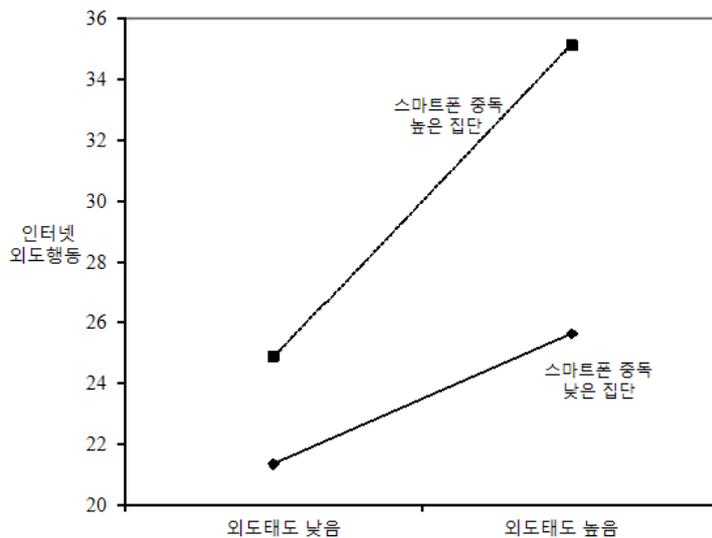


그림 3. 스마트폰 중독과 외도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있다. 특히, 고가의 제품사양과 통신요금을 소비할 수 있는 3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전까지 모바일 콘텐츠시장의 주 소비층이었던 10-20대를 앞서 중장년층이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이들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인 SNS라는 점, 최근 들어 SNS가 기혼자들의 불륜과 이혼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들어, 인터넷 외도의 설명변인으로 스마트폰 중독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경로분석결과, 결혼만족도와 외도태도, 스마트폰 중독 변인이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된 조절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인터넷 외도에 대한 직접 영향을 상정한 부분 매개 모형(수정모형)과 외도태도를 매개한 간접 영향을 상정한 완전 매개모형(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접 경로보다는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에서의 외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성에 의문을 가졌던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Nair, 2009; Peterson, 1983; John, 2006), 부부관계의 질이 직접적으로 외도 발생을 예측하기 보다는 다른 관련 변인들이 외도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하나가 외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 신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은 단일 변인으로 인터넷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도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유의한 조절 변수로 작용하여, 외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강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넷 외도가 인터넷을 매개로 이어지는 관계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적 기능이 강한 스마트폰에 대한 행위 중독 수준이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외도 태도의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인터넷 외도가 PC나 스마트폰을 매개로 발생하는 행위 중독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독의 하위 범주로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Jones & Hertlein, 2012),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인터넷 외도 행동의 발현에는 스마트폰 중독의 행동 문제가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외도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치료의 한 축은 전통적으로 외도 부부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공감적인 듣기, 나 전달법 등의 의사소통개선 전략(Young, Cooper, Griffin-Shelley, Buchanan, & O'Mara, 2000; Maheu & Subotnik, 2001)이 진행되며 동시에 다른 한축은 행위 중독적 측면에서 개인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제한된 연구이긴 하나 기존 인터넷 외도 치료 연구들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전통적 개입 외에, 치료 초기 위기 개입의 관점에서 인터넷 접촉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후 관계 개선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Delmonico, Griffin, and Carnes, 2002; Atwood & Schwartz(2002), Young 등(2000)의 치료적 제안에서도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부부 사이에 이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외도 치료에 앞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둘 것을 강조하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는 과 5년여에 불과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스마트폰 시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이즈음에 새로운 병리적 현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중독의 구성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척도의 개발 및 관련 변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스마트폰 중독의 발생 기전이나 그것이 이끌어내는 결과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규명은 제한적인 상태이다(김학범, 2013). 온라인 공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학계의 관심을 끌어왔던 주제이긴 하나, 주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온라인상의 관계 경험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 2013; 우성범, 권정혜, 양은주, 2014; Locke, 1998; McKenna & Bargh, 2000).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콘텐츠의 주 소비층을 10-20대에서 벗어나 30대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개인의 대인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서 인터넷 외도는 부부라는 배타적 관계에서 인터넷이 매개되어 발생한 새로운 대인관계 현상으로, 성인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된 의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간 인터넷 외도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인들이 어떤 기제를 통해 인터넷 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관계 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와 개인 변인으로서 외도태도,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제를 살펴본 것은 인터넷 외도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만족도 및 외도에 관여하는 변인들은 너무나 다양할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개인과 관계, 환경의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의 기제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Blow & Hartnett, 2005). 본 연구 역시 인터넷 외도의 발생 기제를 결혼만족도와 외도태도,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제한된 변인들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 현상에 대한 제한된 이해만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남녀의 성차나 결혼기간, 이전의 인터넷 외도 경험 등 외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주요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여, 모형을 통한 설명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이성이 개인의 대인관계영역 어

디에 놓여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고려가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만날 때, 이들이 온전히 온라인 상에서만 알게 된 사람인지, 혹은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지에 대한 변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상에 대한 친밀도 및 관계 강도에 대한 평정이 포함되지 못한 점도 제한일 수 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순기능과 역기능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관계의 강도와 친밀감의 정도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간, 온라인상의 대인관계 경험에 대해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즉,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대인관계의 촉진을 가져오는 순기능(stimulate; McKenna & Bargh, 1998)이 있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대인관계의 감소를 가져오는 역기능(reduction; Locke, 1998)이 있음을 제안하는 관점들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진 특성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영역, 즉 관계의 강도와 친밀도 수준에 따라 감소와 촉진 기능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 2013). 예컨대, 대인관계 강도와 친밀감의 정도가 가장 빈약한 낯선 사람과의 인스턴트 메시지 교환에 대한 과도한 탐닉은 오히려 현실 교류를 차단하면서 대인 관계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자극에 주의가 분산됨 없이, 오히려 온라인상 대화에 집중케 하면서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있는 교류를 가능

하게 하는 매체 특성상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며 친밀감 형성을 빠르게 촉진시키며, 새로운 만남 뿐 아니라 현실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경험으로, 부부와 같은 배타적 관계 경험에서 다른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외도현상과 관련지어 대인관계 영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면, 인터넷 외도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낯선 이성과의 인스턴트적 관계 경험에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현실에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온라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친밀감이 촉진된 것인지에 따라 인터넷 외도의 양상 및 설명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전자가 보다 인터넷이라는 매체 중심의 행위에 집중하는 특성이 강하다면, 후자의 경우는 현실의 외도가 온라인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도 행위자가 이 둘 중 어떤 양상을 보이냐에 행위의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이나 치료를 위한 개입 전략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 대한 이러한 구분 없이 인터넷 외도 행위 중심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외도에 대한 보다 현상적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최근, 온라인상의 관계 경험이 부부관계를 위협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이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이들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 현 (2013).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2), 5-32.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학범 (2013).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1), 74-89.
- 김효정 (2014.12.16). 도입 5년 스마트폰, 가방에서 손으로. *아이티투데이*.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1>
- 노미정, 김진화, 이재범 (2010). 스마트폰과 서비스 컨버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4), 59-77.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백인성 (2011.7.25). 스마트폰 사용, 40대가 20대 첫 추월. *경향신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7252200175&code=930201&med=khan
- 서영준 (2015.1 2). 인터넷 보급 20년 가입가구 2000만 돌파 눈앞. *뉴스 1*. <http://news1.kr/articles/?2026994>
- 이초희 (2014.12.11). 스마트폰 쇼핑 3년 새 2.5배 40대 SNS 이용도 급증.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110285896640>
- 이호준 (2014.7.29). 직장인 절반 “나는 스마트폰 중독”, 10명중 8명은 “몸도 나빠져”. *경향신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7292005141&code=920100&med=khan
- 전호선 (2013). 대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우성범, 권정혜, 양은주 (2014). 청소년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111-125.
- 최승미 (2015). 배우자의 인터넷 외도 문제를 호소하는 부부치료 사례 연구. *미발표*.
- 최원석 (2010). 스마트폰 기능적 속성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학술대회*, 2010(1), 289-297.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홍재원 (2014.12.18). SNS는 불륜 창구?...“중년 남녀 중독 심각. *경향신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2181141191&code=920100&med=khan
- Atwood, J. D., & Schwartz, L. (2002). Cyber-Sex: The New Affair Treatment Considerations.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3), 37-56.
- Blow, A. J., & Hartnett, K. (2005). Infidelity in committed relationships II: A substantive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2), 217-233.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couples: Money, work, sex*. New York: Morrow.
- Buss, D. M., Larsen, R. J.,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4): 251-255.
- Choi, S. M. (2012). A New Crisis of Marriage - Koreans' Awareness and Attitude to the Internet Infidelity. The 4th As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akarta, Indonesia.
- Clayton, R. B. (2014). The third wheel: The impact of twitter use on relationship infidelity and divorc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7), 425-430.
- Clayton, R. B., Nagurney, A., & Smith, J. R. (2013). Cheating, breakup, and divorce: Is facebook use to blame? *Cyberpsy., Behavior, and Soc. Networking* 16(10), 717-720
- Delmonico, D. L., Griffin, E. J., Carnes, P. J. (2002). *Treating online compulsive sexual behavior: When cybersex becomes the drug of choice*. In Cooper, A. *Sex and the Internet: A Guidebook for Clinicians*. New York, NY: Taylor & Francis. 147-167.
- Docan-Morgan, T., & Docan, C. A. (2007). Infidelity on the Internet: Double standards and the differing views of women and men. *Communication Quarterly*, 55(3), 317-342.
- DSM-V.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V*.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Feldman, S. S., & Cauffman, E. (1999). Sexual betrayal among late adolescents: perspectiv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aggriev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2), 235-58.
- Glass, S. P., & Wright, T. L. (1977). The relationship of extramarital sex, length of marriage, and sex differ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romanticism: Athanasiou's data reanalyz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691-703.
- Henline, B. H., & Lamke, L. K. (2003). The experience of sexual and emotional online infidelity. Poster presented at the 65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Vancouver.
- Hertlein, K. M., Piercy, F. P. (2006). Internet infidel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4(4), 366-371.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enaro, C., Flores, N., Gomez-vela, M., Gonzales-Gil, F., & Caballo, C. (2007). Problematic internet and cell-phone use: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health correlat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09-320.
- John, E. E. (2006). Sex differences in jealousy in response to actual infidelity experiences. *Evolutionary Psychology*, 4(5), 462-470.
- Jones, K. E., & Hertlein, K. M. (2012). Four key dimensions for distinguishing internet infidelity from internet and sex addiction: Concepts and clinical appli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2), 115-125.
- Liu, C. (2000). A theory of marital sexual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63-374.
- Locke, J. L. (1998). *The de-voicing of society: Why we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New York: Simon & Schuster.
- Maheu, M. M., & Subotnik, R. B. (2001). *Infidelity on the Internet*. Naperville, IL: Source books.
- McKenna, K. Y. A., & Bargh. J. A. (1998).

- Coming out in the age of Internet: Identity “Demarginalization” through virtual group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81-694
- Nair, D. S. (2009). *Are Men and Women really Really Different?: social institutional approaches to infidelit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 Nelson, T., Piercy, F., & Sprenkle, D. (2005). Internet infidelity: A multiwave Delphi Study.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4 (2/3), 173-194.
- Orr, A. (2004). Meeting, mating, and cheating: sex, love, and the new world of online dating USA: Reuters.
- Petersen, J. R. (1983). The Playboy readers' sex survey. *Playboy*, 30(3), 90ff.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Previti D., & Amato P. R (2004). Is infidelity a cause or a consequence of poor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17-230.
- Schafer, M. (2011). Ambiguity, Religion, and Relational Context: Competing Influences on Moral Attitud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4(1) 59-81,
- Schneider, J. P. (2000). Effects of cybersex addiction on the family: Results of a survey.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2(1), 12-33.
- Stabb, S. D., Cox, D. L., and Harber, J. L. (1997). Gender-related therapist attributions in couples therapy: A preliminary multiple case study investig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3), 335-346.
- Treas J. and Giesen,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48-60.
- Underwood, H., & Findlay, B. (2004). Internet relationship and their impact on primary relationships. *Behavior Change*, 21(4), 127-140.
- Weis, D., & Jurich, J. (1985). Size of community of residence as a predictor of attitudes towards extramarital sex.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1), 173-183.
- Whatley, M., (2006). *Attitude towards infidelity scale*. Valdosta state University.
- Whitty, M. T. (2003). Pushing the wrong buttons: Men's and women's attitudes toward online and offline infidelity.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6(6), 569-579.
- Wilson, K., Mattingly, B. A., Clark, E. M., Weidler, D. J., & Bequette, A. W. (2011). The gray area: Exploring attitudes toward infidel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s of Dating Infidelity sca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1(1), 63-86.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Young, K. S., Cooper, A., Griffin-Shelley, E.,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Buchanan, J, & O'Mara, J. (2000). Cybersex and Infidelity Online: Implications for evaluation and treatment.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7(1), 59-74.

1차원고접수 : 2015. 01. 13.

심사통과접수 : 2015. 03. 01.

최종원고접수 : 2015. 03. 12.

The A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Smartphone Addiction and Attitude toward infidelity on Internet Infidelity: A Mediated Moderation Model

Seung Mi Choi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is paper studies the specific mechanism on the affect that marital satisfaction, smartphone addiction, and attitudes toward infidelity has on internet infidelity. Marital satisfaction, which has been known as the variable that affects infidelity, and infidelity attitude has been set up as conjugal relations and individual variable. Considering the medium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infidelity, we tried to see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on internet infidelity. A mediated moderation model was introduced, which included not only the effect that each variable has on internet infidelity, but also the effect that marital satisfaction has on internet infidelity through infidelity attitude. The data on internet infidelity, smartphone addi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infidelity was collected from 531 married adults (male=264, female=267). After that, mediator effect on infidelity attitude and goodness of fit test of the research model has been verified. As a result, the research model set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collected data, and marital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infidelity through full mediation. Smartphone addiction also showed direct effect on internet infidelity.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fidelity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show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a specific mechanism on how the major variables that affect internet infidelit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how to predict internet infidelity. Also, we provided limit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

Key words : Internet infidelity, Smartphone addiction, marital satisfaction, attitude toward infidelity, Mediated Moderation Model